

제주삼다수, 친환경 리딩 브랜드로 도약하다

1998년 탄생한 제주삼다수는 지난 20여 년간 줄곧 시장점유율 1위, 고객만족도 1위, 브랜드 파워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ISO 9001, ISO 14001, FSSC 22000, 인도네시아 할랄 등의 국제 인증을 취득하여 월드클래스 품질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았다. 브랜드 위상과 품질관리도 최고인 제주삼다수가 지난 2월 ‘그린 홀 프로세스’ 친환경 경영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친환경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라벨·무색캡·무색병의 ‘제주삼다수 그린(Green)’ 탄생

국내 생수 업계 리딩 브랜드인 제주삼다수가 친환경을 선도하는 리딩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그 시작으로 제주삼다수의 무라벨 버전인 ‘제주삼다수 그린(Green)’을 탄생시켰다.

제주삼다수 그린은 ‘무라벨, 무색캡, 무색병’이라는 3無시스템으로 완성된 제품이다. 특히 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소비와 친환경의 의미를 더우 높이자는 취지로 음용 후 그대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제주삼다수, 먹는 샘물 업계에서 친환경 기준 제시할 것

제주삼다수는 지난 2월 그린 홀 프로세스 경영 선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절감하겠다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재생페트(R-PET) 관련 연구개발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왔다. 환경부와 식약처의 페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에 맞춰 재생페트 시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재생페트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 품질안전 검증을 금년 내 마무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 관련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재생페트뿐 아니라 바이오페트 개발 연구도 함께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제주삼다수는 자원순환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투명페트병의 업사이클링 활성화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공정에서의 친환경 가치 창출과 더불어 버려진 페트병의 단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가미해 더 높은 가치의 물건으로 재탄생하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플리츠마마와 함께한 의류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노스페이스와 함께 K-ECO 삼다수 컬렉션을 선보이며 자원의 가치와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자원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생수 업계 리딩 브랜드로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생수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니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주삼다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지지해주시는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환경에도 건강함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